

2018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모의논술 우수답안

공 통 문 항

(가)에 언급되어진 인공지능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분류해내는 능력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사람이 기본적인 명령을 내려야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에 제시되어 있듯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은 상당히 중요시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표에서도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구될 능력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제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통찰력 있게, 휴머니즘적으로 접근할 것인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상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일들이다. 인간이 기계적이고 단순한 일들만 행하기에는 인간보다 오차가능성도 적고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훨씬 일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인간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적 맥락을 유연하게 읽어내는 능력과 다각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공감과 같은 타인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통해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맥락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다각적으로 보는 능력의 요구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다)에서 기술된 법관의 미래는 밝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법관은 기존의 법률로 사건을 재판하는 1차원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법관은 단순히 법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하고 이 시대에 맞게 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관은 법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까지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한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들은 인공지능의 능력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인공지능은 법의 내면적인 논리를 파악, 많은 판결들에 대한 자료는 수집 할 수는 있지만 법의 내면적 논리만으로는 파악하기 쉽지 않은 법에 담겨 있는 입법자의 미래에 대한 염원과 같은 외면적 논리를 파악해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적 능력이 요구되는 법관이라는 직업은 앞으로 건재할 것으로 보인다.